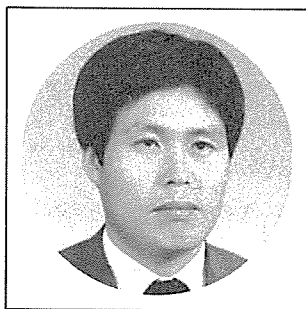


“國民科學으로의 政策 전환 있어야”



金 學 鉉

〈西江大新聞放送學科교수〉

1990년대를 시작하는 첫해에 맞이하는 과학의 달과 과학의 날 행사들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더우기 새로운 과기처장관이, 그것도 남보다 훨씬 출중한 경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사람이 취임한 마당에 예전처럼, 흔히하는 말로 관례대로 치루어진다던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과학행사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바로 그 행사들이 오늘의 한국과학계가 갖고 있는 발상의 전부를 그대로 표출시키고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 행사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가까워지려는 노력하에 이루어졌는가.

언제까지 우리는 국민일반과 유리된, 굳이 좋은 말로 이야기 한다면 과기처 간부 내지 전문 과학인만의 또는 일부 학생들만의 행사로만 남아 있을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것이 전적으로 과학에 대한 국민일반의 무관심에서 기인된다고 탓하기 전에, 우리는 진정으로 과학행사들이 가깝게 접근하도록 국민일반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래의 과학인재 양성은 물론이고 크게 보아 합리적 민주국가로의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림픽을 치루고 나서 나온 구호가 엘리트체육에서 사회체육으로의 전환이다. 그러나 우리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그것은 구호에 불구하고, 그런 체육엘리트 중심의 스포츠육성과 반짝경기 중심의 올림픽을 치루고도 국민건강이 향상되기는 커녕, 체육인만의 경기력 향상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올림픽에 대한 준비과정 그 자체가 사회체육, 곧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체육의 진흥으로부터 나왔어야 했다. 그랬으면 뿌리깊고 생명력 강한 체육진흥이 오늘에도 지속되고 있을 것인데 말이다.

1990년 대전무역박람회는 우리가 대외에 과시하는 일종의 과학올림픽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일반으로 하여금 과학에 가깝게 접근시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이다. 이런 호기를 맞이하여 지금부터 우리는 과학기술인 중심의 과학에서 국민과학으로의 전환정책을 시급히 서두르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의 첫해가 되는 이번 과학행사로부터 그런 국민과학의 정신이 구현되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되었어야 한다. 엘리트체육인 중심의 올림픽이었기에 국민전체가 떠받치는 체육진흥이 못이어서듯이, 국민과학으로의 방향전환 없이는 지속적인 과학진흥이 성취될 수 없음을 명심할 것이다.